

온전한 통합교육: 마음의 소통과 보편적 학습설계*

이 학 준** · 김 용 성*** · 권 순 우**** · 이 선 영*****

Full Inclusion Education: Inner Communication and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Lee, Hak-Jun · Kim, Yong-Seong · Kwon, Soon-Woo · Lee, Seon-Young

요약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온전한 통합교육의 실행방안으로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마음의 소통과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보편적 학습설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방법]** 이와 관련하여 연구 문제는 첫째, 완전한 통합교육이 아니라 왜 온전한 통합교육인가. 둘째, 온전한 통합교육은 마음의 소통(개인)과 보편적 학습설계(제도)를 통해서 가능한가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표된 통합교육 관련 문헌을 분석하는 문헌연구와 윤리학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였다. **[결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교육의 개념, 실행방안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통합교육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완전한 통합교육이 아니라 왜 온전한 통합교육인가를 탐구하였다. 둘째, 온전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마음의 소통과 보편적 학습설계라는 실행방안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지금까지 온전한 통합교육의 실행방안으로서 사회 윤리적 차원의 보편적 학습설계와 개인 윤리적 차원의 마음 소통에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완전한 통합교육이 아니라 온전한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용어선택이다. 완전한 통합교육은 이상일 뿐 실제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온전한 통합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결론]** 온전한 통합교육은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이며 성공적인 통합교육, 진정한 통합교육이다. 온전한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저성취학생, 다문화 학생 등의 개별적인 필요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UDL)과 마음의 소통이 가능할 때 현실이 될 것이다.

주제어 : 통합교육, 보편적 학습설계, 마음의 소통, 온전한 통합교육, 실행방안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mmunication of the mind on individual ethics level and learn how to implement a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on a social ethics level. **[Method]** For this purpose, I use to individual ethics approach and social ethics approach method on inclusion education.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inclusion education was summarized, and the concept of inclusion education was not completely integrated but why it was fully integrated. Second, the method of communication of mind and implementation of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was explored for the sake of a complete and integrated education. It is the choice of terms reflecting reality that calls for inclusion education, not a complete one. The term inclusion education was used in that full inclusion education is only ideal but low probability of being true. A full and integrated education is for everyone, a successful and truly inclusion education. **[Conclusion]** A fully inclusion education is a prerequisite for individual support (such as time, physical integration, teaching, and social integration) of disabled and non-disabled students, low-performing and multi-cultural students.

Key Words : UDL, Inclusion education, implementation, inner communication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8913807)

** 제 1저자, 대구대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ion of THE Korea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dr-kys@naver.com)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ion of THE Korea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참여저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참여저자,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연구원
Researcher, Research Institution of THE Korea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 학문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적 정당성과 가치, 효용성만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판소리(외면)만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문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학문은 고상한 언어유희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특수교육학이 가지고 있는 통합교육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동안 통합교육에 관한 실행방안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물리적 통합[1, 2], 교수적 통합[3, 4, 5], 사회적 통합을 [6, 7, 8, 9, 10, 11, 23] 주제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주장할 온전한 통합교육(성공적인 통합교육)의 실행방안을 찾아본 연구는 사실상 없었다.

통합교육 문제를 살펴보면, 교육현장에서 물리적 통합은 보편적 설계(UD)의 적용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장애 학생이 자신의 집과 가장 가까운 일반 학교로 등교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한 학급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이제 어색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교육적 지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강제력)의 한 방안으로 보편적 학습설계가 제안되고 있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건축에서 보편적 설계에 사용하였던 것을 교육현장에 도입한 것이다. 건축에서 설계 시작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설계, 무장애 설계, 통합설계의 개념이 작용하여 설계하는 것이다. 보편적 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남녀노소 누구나 시설을 사용할 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물리적 통합은 강제할 수 있지만, 사회적 통합은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낙오학생방지법과 같이 교수적 통합을 강제할 필요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시작은 OECD 국가의 평균 쓰레기 발생량 비교를 통해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쓰레기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이다. 즉, 쓰레기라는 현실문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가 쓰레기 처리 문제이다. 그동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국가 차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계몽을 통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 교육적 효과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쓰레기장이 아니라 골목 구석진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래서 양심 거울과 같은 거울을 쓰레기 투기 장소에 설치하여 도덕적 자율성(양심)에 의해서 쓰레기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12].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 방안은 쓰레기도 돈이라는 인식전환을 하도록 한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려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봉

투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이다(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전국적 실행).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사용되면서 분리수거는 자발적으로 이뤄졌으며 쓰레기 문제는 과거의 일정 부분 비교했을 때 해결할 수 있었다[13]. 이러한 현실문제의 해결방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통합교육 문제 역시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도덕적 자율성에 근거한 도덕적 방법(개인윤리)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 힘에 의한 정책이나 제도개혁(사회윤리)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서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실행방안을 탐구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온전한 통합교육’ 방안을 윤리학적 차원에서 탐구하는 것이다.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은 중요한 학문적 주제이다. 특히 통합교육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문제가 바로 성공적인 통합교육이다. 연구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개인 윤리적 접근방법과 사회 윤리적 접근방법에서 찾아보았다. 개인 윤리적 접근방법에서 마음의 소통을 탐구하였으며, 사회 윤리적 접근방법에서 보편적 학습설계를 탐구하였다.

연구 문제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전한 통합교육이 아니라 왜 온전한 통합교육인가.
둘째, 온전한 통합교육은 개인 윤리적 접근방법과 사회 윤리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가능한가.

연구방법

온전한 통합교육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를 차례로 적용하였다. 방법론에 있어 우선은 문헌연구를 그리고 이어서 윤리학적 접근방법을 적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에서 발표된 통합교육 관련 문헌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통합교육의 개념, 실행방안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통합교육의 개념을 정리하였다[14, 15, 16, 17]. 그리고 온전한 통합교육이 아니라 왜 온전한 통합교육인가를 탐구하였다.

둘째, 통합교육을 개인 윤리적 접근방법과 사회 윤리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개인 윤리적 접근방법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에 기반을 둔 인식전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반면에 사회 윤리적 접근방법은 공권력이란 강제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18, 19].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온전한 통합교육은 교사와 학생들의 도덕적 자율성 강화를 통한 마음의 소통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제도적 강제력을 사용하여 모든 교과수업에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수업설계를 의무화(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온전한 통합교육의 실행

방안을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에 바탕을 둔 마음의 소통과 제도의 강제력에 근거한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수업의 의무화라는 제도개혁의 조화와 균형에서 찾아보았다.

온전한 통합교육: 마음의 소통과 보편적 학습설계

완전한 통합교육에서 온전한 통합교육

1971년 특수학급이 처음 설치된 이후 통합교육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사회 전반적으로 통합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가 통합교육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우리 상황에 대한 많은 논의보다는 선진국의 통합교육 운영 방법을 분별없이 도입하였다는 것이다[20]. 실질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것은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된 후부터이다. 특히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법에 따라서 통합교육은 국민의 관심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집중되었다.

통합교육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통합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선, 물리적 통합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지만, 장애와 비장애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통합은 한계를 부딪치게 되었다. 즉, 형식적인 통합교육이라는 물리적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온전한 통합교육(성공적인 통합교육)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교사와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저성취 학생, 다문화 학생 간의 마음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한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소통이 가능해야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고 실제 통합교육도 가능하다.

통합교육은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인 만큼 그동안 통합교육의 당위성과 교육적 가치에 관한 탐구가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관한 탐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1, 2, 4, 5, 6, 7, 8, 9, 10, 11]. 그 구체적 실행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보편적 학습설계이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모든 학생의 학습기회, 학습 과정 그리고 학습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이는 곧 통합교육에서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완전한 통합교육 그 자체는 불가능하다. 사실 완전한 통합교육의 근사적 실현을 위한 노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완전한 통합교육보다는 차라리 온전한 통합교육(성공적인 통합교육)이 강조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완전과 온전은 비슷하여 말장난과 같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완전하다’와 ‘온전하다’ 두 단어 모두 부족함 없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뜻이지만 다소 의미 차이가 있다. ‘완전하다’라는 필요한 게 전부 갖춰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을 말한다. 반면에 ‘온전하다’라는 잘못된 것 없이 바르거나 옳음을 일컫는 말이다. ‘완전하다’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갖췄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온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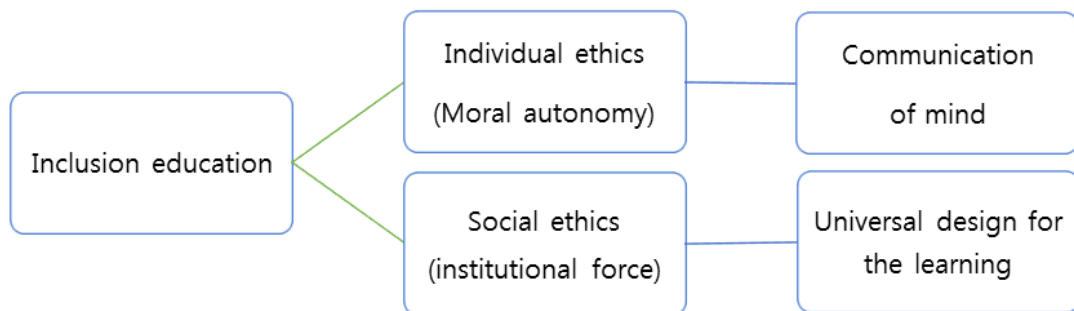
라는 정상적인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온전한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근본 이유는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부재와 편견 그리고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통합교육 성공의 중요한 열쇠는 교사와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간의 장애 이해와 수용, 태도이다. 불통이 진행되며 그 결과로 편견이 자리 잡아서 왜곡된 정책과 교수전략을 펼치게 된다.

이외에도 통합교육에서 소통과 더불어 관계가 중요하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진정한 교육 관계 개선을 위해 교육적, 정서적 지원이 요구된다’ [11]라고 하겠다.

온전한 통합교육의 방안

온전한 통합교육 실행방안을 윤리학에서 찾고자 한 것은 결국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는 자아에서 시작된다. 자아는 주체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라는 구분 또한 가능하다. 윤리적 문제를 개인의 인식전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개인윤리의 접근방법이다. 반면에 사회의 제도개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 윤리적 접근방법이다[18]. 이러한 맥락에서 온전한 통합교육의 실행방안을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윤리는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에 의해서 자율적이며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사회윤리는 정책이나 제도의 힘에 의한 강제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온전한 통합교육은 가능하다. <Table 1>

<Table 1> Inclusion education Process



개인윤리와 마음의 소통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온전한 통합교육의 실행은 모든 학생의 마음 소통을 통해서 상호주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서 시작된다. 통합은 함께 격이 없이 어울리는 교육이다[8]. 함께 격이 없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마음 소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사의 윤리 및 인권의식 함양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우

선적이다. 왜냐하면, 마음의 소통은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인권의식의 고양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차원에서 교사에 의한 일방적 주입교육이 아니라 학생(장애, 비장애, 저 성취, 다문화)과의 소통이 유연하게 이뤄지는 쌍방향 수업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교사는 학급경영 및 교수학습에 대한 전문성,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35]. 이처럼 소통역량의 강화 차원에서 교사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장애 학생의 삶과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21, 27, 35, 36].

온전한 통합교육(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먼저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 학생의 삶과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즉, 장애가 있는 학생이 어떤 장애(장애특성)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과 움직이는 데 어떤 어려움(학습 곤란)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한, 통합교육의 목적, 방법,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통합교육은 비장애학생과 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 간 마음의 소통이 가능하다. 마음의 소통은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 통합학급의 소통 분위기를 형성하고, 장애 학생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윤리와 보편적 학습설계

개인윤리가 하지 못하는 사회윤리의 독자적 기능이 있다. 첫째, 집요한 이기심에 대한 견제와 제재이다. 인간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와 제재가 필요하다. 둘째, 불합리하거나 불의한 사회적 제도나 구조의 개선과 개혁이다. 우리 사회에서 발행하는 윤리적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기보다는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생각보다 많다. 그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도덕적 이상과 목적의 전 사회적이고 일관성 있는 실현이다. 도덕적 이상과 목적이 전 사회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전 사회적 및 지구적 맥락(context)의 이해이다. 윤리적 문제는 지역을 넘어서 전 사회적 및 지구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18]. 이러한 사회 윤리적 맥락에서 온전한 통합교육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보편적 학습설계를 살펴볼 수 있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학습과학에 바탕을 둔 3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조직된 접근법이다. 이러한 원리들은 모든 학습자에게 효과적이며 통합적인 교육과정의 설계와 발달을 안내한다[37].

첫째, 원리(Framework)이다. UDL의 프레임워크는 3가지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① 표상이다. 표상의 원리는 인지적 네트워크로부터 도출되었다. 인지적 네트워크는 감각(예를 들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식별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행동과 표현이다. 행동과 표현의 원리는 전략적 네트워크로부터 도출되었다. 전략적 네트워크는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과정을 전략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참여이다. 참여의 원리는 정서적 네트워크로부터 도출되었다. 정서적 네트워크는 우리가 외부의 누구 그리고 무엇과 상호작용하는지를 규제한다[38].

둘째, 지침(guideline)이다. 지침은 원리의 하위 단계이다. 원리별로 세 개의 지침이 있다. 이것들은 공간과 수업을 설계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도구, 자원, 전략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지원한다[38]. UDL 지침은 3가지 원리와 지침 9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상은 ① 다양한 선택 제공, ② 언어, 수식, 기호의 다양한 선택 제공, ③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선택 제공 등이다. 표현과 행동은 ① 인지 방법의 다양한 선택 제공, ② 표현과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선택 제공, ③ 자율적 관리기능에 따른 다양한 선택 제공이다. 참여는 ① 흥미를 돕는 자율성을 최적화하기, ②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를 돕는 선택 제공, ③ 자기조절능력을 키우기 위한 선택 제공이다.

셋째, 점검 사항(check point)이다. 그동안 한국적 상황과 다른 미국의 UDL 체크포인트를 번역하여 사용한 결과 문화적 차이와 수업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에 적합한 보편적 학습설계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보편적 학습설계를 반영한 수업이 얼마만큼 진행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에서 UDL 기반수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한국의 교육에 적합한 체크포인트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형 UDL 체크포인트 개발은[39] 그동안의 한계라고 인식되었던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보편적 학습설계를 활용한 수업 내용을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데 유용하게 되었다.

현장의 교사들은 한국형 점검 사항을 활용해서 자신이 얼마나 보편적 학습설계를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수업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의 성공 여부는 정책적 차원의 지원과 방안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교사가 얼마나 교육 의지를 갖추고 실천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과 교실에서 교육 평등과 교육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과 담당교사의 의지가 중요하다.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수업은 그동안 관습적으로 행해오던 수업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의 교육 의지와 용기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외에도 보편적 학습설계와 관련하여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제도적 강제력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모든 학생 성공법(ESSA)으로 2015년 12월에 통과된 미국 법이며, K-12 공공교육정책을 관리한다. 이 법은 이전의 낙오아동방지법(NCLB)을 대체하였지만, 학생들에게 주어진 주기적인 표준화 시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지는 않았다. 낙오아동방지법과 마찬가지로 ESSA는 1965년 초등 및 중등교육법(ESEA)의 재승인으로서 연방정부의 공교육 확대 역할을 확립했다. ESSA는 장애학생과 영어학습자 포함하는 모든 학습자의 교과과정 접근성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모든 학생 성공법의 목적은 모든 어린이에게 공정하고 평등하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1980년대 이후 초중등 교육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역할을 처음으로 좁히는 것이다. ESSA는 2001년 낙오아동방지법에 대한 표준화 된 테스트 요건을 유지하면서 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 규정을 주 정부로 옮겼다. 법에 따라 학생들은 3학년과 8학년 사이에 매년 시험을 보게 된다. 낙오아동방지법(NCLB)과 모든 학생 성공법(ESSA)의 차이점은 ESSA는 매년 NCLB의 표준화된 테스트 요구 사항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연방 법률 책임 측면을 미국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국가는 여전히 교육부에 책임 계획을 제출하지

만, ESSA는 지역 교육 기관이 지역 책임 계획을 위한 보조 조직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학생 성공법(ESSA)은 또한 장애 학생들을 위한 기대와 요구 사항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설정한다. 대부분의 장애 학생들은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학생들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SSA는 장애 학생의 10%를 차지하는 학생 중 단 1%만이 일반적인 표준화 된 시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1%는 심한 인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대신에 평가를 받아야 한다.

논의: 온전한 통합교육의 방안

통합교육 실행방안에 대한 개인 윤리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마음의 소통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리적 통합은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저 성취 학생 등이 상호주관성 차원에서 마음의 소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 간의 마음 소통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소통은 타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소통 부재는 또래 교수와 같은 도움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한다. 소통이 중요한 것은 소통의 시작이 온전한 통합의 절반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온전한 통합교육의 해법을 보편적 학습설계에서 찾아보았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첫째,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맞는 적절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의 태도, 교수 매체, 교수전략, 교수 방법, 유연한 자료, 접근방법 등이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상호 작용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수적 통합이 진행되어야 한다. “통합교육에 보편적 학습설계의 도입은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의 다양한 개별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 접근, 참여,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40].”

보편적 학습설계의 국내 도입은 2002년부터 일반교육보다는 특수교육학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실행방안의 하나로서 수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보편적 학습설계는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이라고 오해를 낳았다[41, 42, 43]. 하지만 보편적 학습설계는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저성취, 다문화 학생 등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설계라는 점에서 특수교육만이 아니라 일반교육과 교과 교육학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44, 45, 46, 47]. UDL은 일반교육 및 특수교육은 물론 조기교육과 중등교육의 모든 학습자를 포함하는 교육이다. 사실 UDL은 모든 학습자에게 진정으로 적합하게 설계된 교육과정이 있을 때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보편적(Universal)이란 획일적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차를 갖는 모든 학습자가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같은 내용에 대해 동등하고 공정하게 접근하고 학습할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38].

통합교육은 특정한 교과교육에서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교육에서 실행해야 한다. 이미 미술, 음악, 체육, 과학, 국어, 수학 등에서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수업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한 바 있다[4, 48, 49, 51, 52]. 이처럼 다양한 교과교육에서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수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보편적 학습설계는 구체성이 부족하며 너무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53]. 원리와 지침, 그리고 점진 사항을 강조하여 현실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보편적 학습설계를 교실에서 적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부재하여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오해와 부족한 구체성을 보완한 통합교육의 인식과 실천이 요구된다. 우선, 사회 윤리적 접근방법으로 제도적 장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 윤리적 차원(제도, 정책)은 제도개혁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통합학급은 학교장에 의해서 교직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임교사가 맡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직 경험을 풍부한 1급 정교사 이후에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실 환경에서 최소한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력 교수가 필수이다[35]. 이 같은 제도적 장치는 학교장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학교장이 보편적 학습설계에 필요한 시설, 자원, 교과 등의 개혁에 적극적 지원과 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통합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또 다른 제도적 장치는 통합교육에서 1학급 1담임 구조를 해체하고 기존의 교사 수급 방향을 통합교육의 질적 수행 차원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의 질, 수행 방법 등의 기법 축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특수교사,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통합교육연구가 필요하고, 통합학습 연구교사 제도, 정기적인 통합학급 수업의 공개, 연구회 및 커뮤니티를 통한 다양한 정보 공유, 교육청의 컨설팅이나 학교 내 교사들 사이의 상담제 등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다[35, 54, 55, 56]. 그뿐만 아니라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를 위한 통합교육 문제 중심학습 교육과정 개발, 교사의 요구에 따른 문제의 조절과 구조화, 테크놀로지 활용, 튜터의 역량 개발, 교사교육 제도 등이 있다[5].

위와 같이 온전한 통합교육의 실행방안은 구체적이며 다양하다. 이 중에서 연구자는 정책이나 제도의 힘으로 온전한 통합교육이 달성되기를 바라면서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교과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교과교육은 온전한 통합교육을 실행하는 데 실천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다. 결국, 온전한 통합교육의 실행방안은 개인 윤리적 접근방법으로 비장애 학생의 장애 이해와 수용, 태도와 관련된 인식전환이 요구되며, 사회 윤리적 접근방법으로 보편적 학습설계와 같은 제도적 장치나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합교육의 성공 여부는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과 사회의 제도적 강제력의 조화와 균형에 달려있다.

결론

지금까지 온전한 통합교육의 방안을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접근방법을 통하여 탐구

하였다. 사회윤리는 제도적 강제력 차원에서 제도개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개인윤리는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양심) 차원에서 도덕 주체의 인식을 전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온전한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윤리적 접근방법으로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수업의 의무화를 제안하였고, 개인 윤리적 접근방법으로 통합교육 학생들의 마음 소통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온전한 통합교육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양자 조화와 균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통합교육을 실행하는 사회 윤리적 차원의 방안이다. 마음의 소통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통한 장애 인식과 태도 그리고 마음의 소통이라는 인식을 전환하는 개인 윤리적 차원의 방안이다.

완전한 통합교육은 통합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현실에서 실행 불가능한 것이다. 온전한 통합교육(성공적 통합교육)이라는 용어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용어선택이다. 완전한 통합교육은 그 자체가 이상일 뿐 실제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현실에 적합한 온전한 통합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온전한 통합교육은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이며 성공적인 통합교육, 진정한 통합교육이다. 온전한 통합교육은 물리적 통합, 교수적 통합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 저성취학생, 다문화 학생 등의 개별적인 요구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UDL)과 마음의 소통이 가능할 때 현실화될 수 있다.

결국, 온전한 통합교육의 방안은 개인 윤리적 접근방법과 사회 윤리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사회 윤리적 접근방법에서 주목하는 것은 제도개혁이다. 제도개혁으로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수업을 강제하는 것이다. 개인 윤리적 접근방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학생들이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인식전환은 상호 간의 장애 이해와 태도, 그리고 상호 존중과 배려 차원의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 저성취학생, 다문화 학생 간의 마음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온전한 통합교육은 사회윤리 차원의 제도개혁(보편적 학습설계)과 개인윤리 차원의 인식전환(마음의 소통)과의 조화와 균형 차원에서 실행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ference

- [1] Kim, S. A. (2010). The Educational Contents on Korean inclusion Based on the Postmodernism and Anthropological View Points: In the Korean Law & political background, Precedent Studies related to Inclusive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0(2), 23-49.
- [2] Kim, S. A. (2010). A Study on Institutional System Reforms for Improvement of Inclusive Educational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8(2), 1-18.
- [3] Kim, K. M., & Song, C. W. (2005). Review of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for Full Inclus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2(2), 67-84.
- [4] Park, J. H. (2009). Signification of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UDL) Application in Included Education Environment. *Research on Intellectual Disability*, 11(1), 237-253.
- [5] Sohn, J. Y. (2012).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Problem-Based Learning as a Method of

- Teacher Education for Integrated Education for Disabled Children.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Research*, 16(1), 85-108.
- [6] Lee, D. S. (2009). Research on Methods of supporting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4(2), 93-119.
- [7] Jung, K. J., & Kim, D. L. (2014). The Search for Potential about Response to Intervention(RTI) to Solve the Problems of Inclusive Education in Korea - Focusing on Curriculum in 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9(1), 159-184.
- [8] Kim, B. H. (2014). *Man in heaven*. Gyeongsan: Korea Special Education and Problems Institute.
- [9] Lee, S. D., & Kim, K. H. (2006). The recent issues and trends of 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1), 63-81.
- [10] Lee, J. H. (201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Education: Focused on the German Unified Education Operating Cas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8(1), 137-158.
- [11] Lim, H. S., & So, H. J. (2006). The Experiences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their Typical Peers on 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1(2), 105-137.
- [12] Domestic and foreign news agency, September 11, 2017.
- [13] Jun, K. H., So, J. H., & Hong, J. H. (2007). The Effects of Unit Pricing System for Household Solid Waste: Focused on 6 Metropolitan Cities and 9 Province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1(1), 175-201.
- [14] Park, H. J. (2010). Rethinking the Meaning of Inclusion: Education for All and the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5(2), 103-128.
- [15] Jung, D. Y. (2006). Review on the Concept and Issues of 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1), 1-21.
- [16] Rose, D. H., & Meyer, A. (2002). *Teaching every student in the Digital age: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Alexandria, VA.
- [17] Vislie, L., (2003). From integration to inclusion: focusing global trends and changes in the western European societies. *European Journal of Special Needs Education*, 18(1), 17-35.
- [18] Ko Beom-seo (1993). Social ethics. Seoul: Nam-nam.
- [19] Park, D. H. (2008). See Reinhold Niebuhr's Christian Social ethics through Goh Bum-seo. *Christian Social Ethics*. 16. 7-30.
- [20] Oh, S. W. (2016). A plan to operate school consulting to support integrated education. *Phenomenological Education Research*, 12(1), 53-76.
- [21] Lee, M. K., Park, G. O., & Han, K. G. (2009). Qualitative Research on Educational Supports for Successful Inclusion of Students with Severe & Multiple Disabilities : Focused on regular education teachers, special classroom teachers, special school teachers' Percep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6(2), 33-65.
- [22] Sohn, J. Y. (2012).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Problem-Based Learning as a Method of Teacher Education for Integrated Education for Disabled Children.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Research*, 16(1), 85-108.
- [23] Lee, D. S. (2009). Research on Methods of supporting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4(2), 93-119.
- [24] Lee, J. I., & Kim, K. S. (2015). A Study of Experience and Factors of Teachers Avoiding Being Placed in Inclusive Classrooms of Elementary Schools. *The journal of education*. 35(2), 1-30.
- [25] Jung, K. J., & Kim, D. L. (2014). The Search for Potential about Response to Intervention(RTI) to

- Solve the Problems of Inclusive Education in Korea: Focusing on Curriculum in 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9(1)*, 159-184.
- [26] Kim, K. M., & Song, C. W. (2005). Review of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for Full Inclus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2(2)*, 67-84.
- [27] Choi, S. K., & Yoo, T. S.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Attitude to Integrated Education and Performance.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Science Research, 42(2)*, 73-91.
- [28] Park, J. H. (2009). Signification of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UDL) Application in Included Education Environment. *Research on Intellectual Disability. 11(1)*, 237-253.
- [29] Lee, S. D., Kim, G. H. (2006). The recent issues and trends of 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1)*, 63-81.
- [30] Lee, J. H. (201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Education: Focused on the German Unified Education Operating Cas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8(1)*, 137-158.
- [31] Lim, H. S., & So, H. J. (2006). The Experiences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their Typical Peers on 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1(2)*, 105-137.
- [32] Ko, B. S. (1999). moral and political methods in ethics. *Christian Social Ethics. 1(1)*, 8-31.
- [33] Kim, B. H. (2014). *Man in heaven*. Gyeongsan: Korea Special Education and Problems Institute.
- [34] Kim, S. A. (2010). A Study on Institutional System Reforms for Improvement of Inclusive Educational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8(2)*, 1-18.
- [35] Cho, T. G. (2016). An Auto-ethnography on the Inclusion Class Teacher' s Teaching Experiences i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5(1)*, 105-129.
- [36] Ji, J. M.(2010). Narrative Inquiry about Implementing Inclusive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4)*, 181-205.
- [37] Rose, D. H., & Meyer, A. (2002). *Teaching every student in the Digital age: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Alexandria, VA.
- [38] Nelson, L. L. (2014). *Design and deliver: Planning and teaching using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Inc.
- [39] Kim, N. J., & Kim, Y. W. (2017). Development of Korean Instruction Analysis Checklist Based on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7(3)*, 425-457.
- [40] Kim, E. S., Kim, J. H. (2011). Application of the Universal Learning Design Principles to the Integrated Education Environment. *child studies. 20*, 33-50.
- [41] Kim, N. J., Kim. Y. W., & Woo, J. H. (2016).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by Classes with UDL.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7(4)*, 67-90.
- [42] Hall, T. E., Meyer, A., & Rose, D. H. (2012).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in the classroom*.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43] Ralabate, P. K. (2016). *Your UDL lesson planner: The step-by-step guide for teaching all learners*. Baltimore, MD: Brookes.
- [44] Park, H. R. (2013). *Expert awareness research to develop universal learning design standard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45] Shin, H. S. (2009). *The Effect of Universal Learning Design on Aca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Interests according to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Level and Learning Form*.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46] Woo, Y. M. (2014). *The Effect of Mathematics and Learning on the Learning Attitudes of the Undergraduate Mathematics*.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Daegu National University
- [47] Lee, K. R. (2014).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earning Outcomes in Science Classes Applying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Master degree.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48] Kwon, H. J. (2012) *The effects of science class applied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on science achievement and academic engagement of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nd on teachers'-students' performance in a general middle school*. Ph.D. dissert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 [49] Woo, Y. M. (2014). *The Effect of Mathematics and Learning on the Learning Attitudes of the Undergraduate Mathematics*.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Daegu National University
- [50] Woo, Y. M. (2014). *The Effect of Mathematics and Learning on the Learning Attitudes of the Undergraduate Mathematics*.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Daegu National University
- [51] Lee, Y. R. (2016). *The effect of a hybrid music class on universal learning design and differentiating professor*. a master's thesis at Changwon University
- [52] Hwang, R. R(2015). *The Effects of UDL-Based Reading Instruction on the Elementary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a doctoral dissertation at Dankook University
- [53] Kim, N. J., & Kim, Y. W.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UDL Based Instructional Design Model(K-PAL).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9(3), 45-86.
- [54] Kim, K. H. (2013). The Implications Through the Inclusive Education of Free Waldorf Schools in Germany.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7(3), 1-27.
- [55] Kwon, J. S. (2004). The Analysis of Co-teaching Level for the Inclusive Classroom in Elementary School. *Korean Association of Development Disabilities*. 8(2), 1-14.
- [56] Lee, S. H., Hwang, B. S. (2000). Development of An Organizational Model for Efficient Collaborative Programs between General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7, 67-87.